

6, 7 월

서울 수녀원 2019년 6-7월 회보 제279호

김 헤르만 수녀 이콘 전시회



6월 7일~ 6월 13일 김 헤르만 수녀님이 인천 가톨릭 대학원 그리스도교 미술학과에서 이콘 전공 학업을 마치며 석사학위 청구를 위한 이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카대 종교국제 캠퍼스 조형예술대학의 RIVUS 전시관에서 6월7일~ 6월 13일을 마치고 서울 본원 회의실 6월 29일 부터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 윤경이 수녀님은 1년간의 영어연수 후에 10개월 간의 EAPI (East Aisan Pastoral Institute) course로, 2년간의 필리핀 연수를

마치고 6월 17일 본원으로 귀원하셨고, 2014년 학업을 위해 떠나셨던 **하늘 수녀님**도 마닐라 수녀원에 머무르면서 통계학 학사코스를 스크라스티카 대학에서 마치시고 6월19일 귀원하였습니다. 두분 수녀님의 건강한 모습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경이 수녀님은 도착한 다음 날 원곡에서 필요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바로 사도직 현장으로 달려 가셨고, 하늘 수녀님은 짧은 본가 휴가를 마치고 30일



성서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 **바오로 서간 통독 모임**이 5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성소관에서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세 명의 자매와 함께 바오로 사도의 간절한 신앙과 신학이 담긴 편지 들을 읽으며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총회 메아리

11차 총회 메아리가 6월 24일 월요일, 본원 베네딕도 교육관에서 있었고, 제주와 표선 본원 그리고 2차 성남에서의 총회메아리에 참석하신 20여분의 수녀님들을 제외한 모든 수녀님들이 참석한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원장 수녀님이 총회 전반에 대한 개략을 설명하신 후, 포천 공사 상황과 다른 현안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어 홍 돌로레스 수녀님이 총회 총 진행자로서 총회와 총회 이후 과정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총회 본 안건을 위한 4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11차 서울 총회 메시지를 함께 낭독하면서 공동체, 양성, 사도직, 기도를 Sr. 정필립바, Sr. 김마리페레즈 Sr. 최베닐다, Sr. 홍돌로레스 수녀가 발표하여 주셨고 현안 문제에 대해 이 일루미나 수녀님께서 성남 본원에 대한 결정 사항을,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원장 수녀님과 홍 돌로레스 수녀님이 개략해 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포천 양로원 건축 공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이 미셸 수녀님이 해 주셨습니다. 총회 이후 총회 메아리를 준비하면서 수고해 주신 원장님과 부원장님, 홍돌로레스 수녀님 그리고 김마리페레즈 수녀님과

박스클라스티카 수녀님 그 외 서기로 수고 해 주신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시 30분경 마친 총회메아리는 다음 차 성남에서의 총회로 바톤을 넘겼고, 6월 29일 토요일 성남 수녀원 공동체의 새로운 분원 모습을 둘러보며 준비된 맛난 점심 식사도 하고 2차에 참석하신 김 데레사 수녀님의 충실한 보충 설명으로 더욱 풍부한 총회메아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3차 7월 22일 3차 총회메아리도 홍돌로레스 수녀님과 정 정필립바 수녀님의 수고로 22일 제주 연동분원, 23일 표선분원에서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거리적 특수성으로 1,2차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수녀님들께 총회의 결과와 결정에 대한 좋은 나눔이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김 간디다 수녀님이 5월 15일~6월 14일 30일 피정을 마치셨고, 7월 5일부터 마닐라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이 하늬 수녀님이 성서통독 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간디다 수녀님은 오랜만에 오롯이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 드리셨고 나눔 글에서 소감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임진각서 한반도 평화기원미사 봉헌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년이 되는 날, 20여명의 수녀님들과 수련소 자매님들이 6.25를 맞아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갈라진 민족의 화해와 일치, 평화를 기원하는 2019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를 봉헌을



위해 두대의 봉고차에 나누어 타고,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전국 규모의 '한반도 평화기원미사'를 함께 봉헌했습니다. 전국 규모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가 봉헌되기는 2000년 대회년, 2003년, 2011년에 이어 네 번째이며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마태 5,9)을 주제로 봉헌된 이날 미사는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주관으로

“오늘 전국 각 교구로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에 참석한 우리는 서로에게 충칼을 거는 이 아픔의 역사를 반성하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짚어 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김희중 대주교님과 우리나라 모든 하느님 백성의 염원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미사에는 또한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와 염수정 추기경, 이병호 주교 등 전, 현직 주교단 18명, 전국 교구 사제 200여 명이 공동집전 하였고, 신자와 수도자 등 2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마리요한 수녀님 재파견

작년 4월 6년만에 선교지에 돌아와 건강 검진을 하며 휴식과 피정, 회복의 시간을 보낸 이 마리요한 수녀님이 나미비아 공동체의 선교 재파견 요청에 흔쾌히 응답하고 하7월 2일 윈드훅 선교지로 재파견 되었습니다. 건강 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밝고 환하게 웃으며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는 수녀님을 보내며 하느님 손에 있는 우리 삶의 여정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또 다시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따라 행복하고 축복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분원장 회의

7월 1일 월요일, 총회로 인해 미루어진 분원장 회의가 베네딕도 교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오전 10 시작전례 그리고 낮기도 전까지 총회 주제와 관련된 “상호문화적인 삶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가졌고 낮기도와

점심 식사 후에는 총회 현안에서 이야기되었던 부암동에 있는 우리 소유의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3:30부터 각
 분원의 소식을 3분 스피치로 듣는 시간을 갖고 귀가하였습니다.



류지웅 치프리아노 왜관 수도원 새 신부님 미사

7월 18일 목요일 왜관 수도원의 류지웅 치프리아노 수사님이 서울 본원에서 첫미사를 하셨습니다. 6월 24일 왜관
 수도원에서 사제 서품을 받으시며 선택하신 성구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야 6,8)를 가지고
 성소에 얽힌 짧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활기찬 강론을 통해 신부님이 학교에서 교직에 몸 담고 있다가



어떻게 수도성소, 사제성소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신학교 시절에 유혹과 같은 회의를 겪으면서, 먼저 나서서
 하느님께 매달렸던 자신을 돌이켜 생각하였고, 서품 성구를 선택하며 봉헌을 새롭게 할 수 있으셨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신학교 시절을 함께 보내시고 올해 초에 사제품을 받으신 친구 신부님이 ???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공동체는 사제성소가 끊이지 않는 왜관 수도원에 내려 주신 하느님의 축복에 감사드리며 축복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7월 5일 - 하늘 수녀님이 무더위 속에 30일 성서피정 시작하였으나 27일 본원 화재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7월
 11일 김 마리비타 수녀님께서 장호원에서 개인 30일 피정하셨습니다..



사부 성 베네딕도 축일을 기념하며

부 고

7월26일 오전 박 니콜라오 수녀님의 모친 김형순 안나(86세) 자매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정정하셔서 일주일 전에 자녀들과 흔쾌한 생일잔치로 기뻐하셨다는 어머니께서 미리 예감하신 듯 목욕재계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에 모두 감동을 받았지요. 남동생으로 목사님을 두신 수녀님의 어머니께서 두배의 축복으로 하느님 품 안에 지복을 누리시고 남은 가족을 위한 전달자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본원 화재

7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경 본원에서 저녁식사를 마쳐 갈 무렵 화재 경보를 듣고 긴급대피를 하였습니다. 내정과 1층 동산에 서서 본관 내정 반대편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새까만 연기와 건물의 모든 열린 창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연기로 화재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었고, 발만 동동구르며 지켜보는 우리보다 동네 주민들에 의해 먼저 발견된 화재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5대의 소방차와 소방관님들의 빠른 대처로 진화되는 모습을 가슴 졸이며 지켜 보았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에 과학수사대와 화재보험에서 조사를 나왔고 수련소 층의 선생 수녀님 방에서 시작한 전기로 인한 화재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보호하심과 안배하심을 화재가 발견된 시간이나 상지 피정집등 모든 주변 상황을 통하여 느낄 수 있었고 오로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명피해, 상해 없이 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구가 이루어지기 까지 본원의 모든 가족들이 상지 피정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일상이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번 화재 발생으로, 또한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공동체적으로 개인 각자가 모두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 8월 15일 수도원의 가장 중요하고 큰 행사가 수녀님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잘 마무리 되었고 서울 수녀원은 수련자, 첫서원자, 종신서원자를 각각 1분씩 더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행사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습을 위해 뛰어다니시면서 수도생활의 일상성을 잃지 않도록 특별히 힘써 주신 원장님, 부원장님, 당가실 수녀님들, 말씀터 뒷편에 재봉틀을 옮기시어 밤낮없이 전념하여 수도복을 만들어 주신 말티나 수녀님, 큰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전례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전례담당 수녀님들과 가대의 모든 분들, 무더위와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재 뒷처리와 병행하여 매끼 식사를 변함없이 차려 주시어 모두의 힘을 북돋아 주신 주방의 엘리사벳 수녀님과 협력하신 모든 자매님들께 하느님의 더욱 큰 축복과 보살피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화재진압을 위해 수고 해주신 소방관님들과 피난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도움을 주시고 있는 모든 분들을 통해

하느님의 위로와 보호를 또한 느끼고 있으며 무더위 속에 마음으로는 부족함 없는 피난 생활을 잘 견디고 있는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를 건네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련소 복도 천장



폐허가 된 복도



경당 십자가의 곁 벽면



4층 화장실 휴지 놓았던 자리



건너편 헤르만 수녀님 방 벽면에
있는 검은 제

나눔글

김 간디다 수녀

지난 5월 15일~6월 14일 30일간 저는 하느님 현존 안에 주님 말씀을 대하면서 하느님과 가까이 지내는 은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 오늘의 제가 되게 해 주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많이 감사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를 이 베네딕도 수녀회에 불러 주시고 한 가족으로 불러 모아 주신

수녀님들과 자매님들과 삶을 함께 하면서 주님께 끊임없이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매일 매일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피정 동안 기도로 함께 해 주신 공동체의 모든 수녀님들과 수련소 자매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크시고 크신 저의 하느님, 당신의 그 크신 사랑, 무한한 자비, 감사합니다. 한없이 참아 주시는 당신의 인내,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당신께서 저의 하찮은 사랑을 갈구하시며 따라 다니시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자체인 나, 별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며 정확시켜 주시어 당신 것으로 만들고저 심혈을 기울이시는 당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것처럼 소중한 아끼고 사랑을 쏟으십니까? 하찮은 저의 지성이, 저의 감성이, 저의 온 존재가, 크시고 크신 당신 앞에 그저 침묵할 따름입니다. 저는 당신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듣고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며 당신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당신 마음으로 품어 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은총만을 간구합니다. 제 삶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시며 제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해 오늘의 제가 있게 하신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저의 날들, 텅으로 주신 선물의 날들을 당신 손에서 받고, 당신 자비에 의지하며 매일, 매순간을 당신과 함께 사는 것만이 저의 소망이옵니다. 오, 좋으신 주님, 저의 남은 여생 순간순간이 당신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 찬미가 되게 하소서. 또한 당신이 저를 부르시는 그 날이 올 때 기쁨으로 당신께 나아가 영원히 당신과 함께 당신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